

사무엘의 역사에서 볼 수 있는 영적인 원칙과 생명의 공과와 거룩한 경고

성경: 삼상 1:10-11, 18-20, 27-28, 2:30, 35-36, 3:1-21, 4:11-22, 7:3-17, 12:23

I. 사무엘은 레위 지파 출신이었지만(대상 6:33-38) 하나님께서 제사장 가문으로 정하신 아론 집안 출신은 아니었다. 사무엘은 출생에 따른 제사장이 아닌 나실인의 서원에 따른 제사장으로서 주님을 섬겼다.

A.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움직이신 결과는 하나님의 갈망의 성취를 위해 절대적인 이기는 나실인을 산출한 것이었다. 사무엘은 심지어 태어나기도 전에, 이러한 사람이 되도록 어머니에 의해 헌신되었다 — 삼상 1:10-11, 18-20.

B.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백성이 나실인이 되기를 갈망하신다. 나실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도록 절대적이고도 궁극적으로 거룩하게 되며 분별되는 것, 즉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위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증거, 곧 그리스도의 증거와 표현으로서 증명하는 교회이다 — 민 6:1-2, 시 73:25-26, 계 1:2, 9-13, 19:10, 비교 출 38:21.

1. 나실인이 포도주나 그 근원과 관련된 모든 것을 멀리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땅에 속한 누림과 즐거움을 멀리하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누림과 즐거움으로 취하고 체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명나무를 먹는 것, 곧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교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한다 — 민 6:3-4, 계 2:7, 사 9:12-13.

2. 나실인이 머리를 밀지 않는 것은 주님의 머리의 권위를 거스르지 않고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대표 권위를 거스르지 않고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 민 6:5, 롬 13:1-2상, 엡 5:21, 23, 6:1, 히 13:17, 벧전 5:5.

3. 나실인이 자신의 혈육의 주검에 의해 더러워지지 않고 하나님께 거룩하도록 분별되어 있는 것은 나실인이 천연적인 애정을 이기는 것을 의미한다 — 민 6:7.

4. 나실인이 죽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 않거나 곁에 있던 누군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의해 더러워지지 않는 것은 나실인이 죽음에서 분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민 6:6-9, 계 3:4, 레 11:31, 5:2, 비교 요일 5:16.

II. 사무엘의 시대에 아론 집안의 제사장 직분은 철저히 타락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예견하셨기 때문에 아론 집안을 제사장이 되도록 정하시는 것에 더하여, 정해진 제사장들에게 부족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민수기 6장에 있는 나실인의 서원이라는 보완책을 마련해 두셨다.

결정 연구 개요

메시지 3 (계속)

- A. 아론 집안이 타락하게 되자 이 보완책이 실지로 효력을 발휘하였다. 사무엘은 주님께 헌신 되고, 분별되고, 자신을 빌려드림으로써 제사장이 되었다 — 삼상 1:11, 27-28.
- B. 제사장 직분에 관한 한, 엘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한나는 사무엘을 주님께 빌려드렸다. 비정상적인 상황이 되면 주님은 그분의 행정에 있어서 가난하게 되시므로, 누군가가 자원하여 자신을 주님께 빌려드릴 필요가 있다.
- C. 사무엘을 엘리에게 드린 후에, 한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성취하신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그분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었으며, 그녀에게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 삼상 2:1-10.

III. 사무엘은 엘리의 보호 아래서 자랐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며(삼상 2:11하, 18-19), 엘리에게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웠다.

- A.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 번 부르셨다. “그제야 엘리는 여호와께서 그 소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가서 누워 있다가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면 이렇게 말씀드려라. ‘오, 여호와님! 말씀하십시오. 이 종이 듣고 있습니다.’’ … 여호와께서 오셔서 곁에 서시어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부르셨다. 그러자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말씀하십시오. 이 종이 듣고 있습니다.’” — 삼상 3:1-10.
 - 1. 사무엘은 이것을 엘리에게서 배웠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긍정적인 것이었다. 주님의 종들인 우리는 주님과의 교통을 유지하며 항상 그분께 귀를 기울여야 한다 — 눅 1:34-38, 10:38-42.
 - 2. 우리의 생활은 주님의 말씀에 달려 있고, 우리의 일은 주님의 명령에 달려 있다(계 2:7, 삼상 3:9-10, 비교 사 50:4-5, 출 21:6). 믿는 이들의 생활은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하심에 의존한다(엡 5:26-27).
 - 3. 주님의 말씀하심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게 되는데, 그분의 경륜의 목표는 바로 그분의 배필인 신부를 얻으시는 것이다 — 계 2:7, 엡 5:26-27, 아 8:13-14.
- B. 사무엘은 배우는 동안 아론의 계통에 따른 타락한 제사장 직분이 변질되는 것을 목격하였다.
 - 1. 사무엘은 백성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궤를 강탈하고 블레셋 족속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엘리의 집안에 내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깨달았다. 이 심판에는 엘리의 죽음과 그의 악한 두 아들인 홉니와 비느하스의 죽음이 포함되어 있었다 — 삼상 2:12-36, 4:11-22.

사무엘기상·하

메시지 3 (계속)

2.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에 내리실 엄중한 심판에 대하여 예언하였다(삼상 2:27-36). 그리고 나서 사무엘을 통하여 하신 여호와와의 말씀이 이 엄중한 심판을 확증하였다(3:11-18).
3. 하나님께서 다가올 심판을 사무엘의 입을 통하여 엘리에게 전하신 목적은 이 어린 제사장 소년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인상을 심어 주시려는 것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였다 — 삼상 3:17-18.
4. 이것은 사무엘이 이후에 나실인으로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때 그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제사장으로서 봉사하는 내내 그에게 지속적인 경고가 되었다. 이러한 경고의 도움으로 그는 온 일생 동안 하나님을 섬길 때 계속 순수한 상태로 있을 수 있었다.

IV. 사무엘은 왕권이 함께하는 왕국 시대로 시대를 전환한 사람이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서뿐 아니라 심지어 인류 역사에서도 위대한 일이었다.

- A. 사무엘은 아론의 집안을 거슬러 반역하거나 아론의 집안에 속한 어떤 것도 강탈하지 않았다.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하나님은 환경을 안배하시어 그를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시대를 왕국을 가진 왕의 시대로 바꾸시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게 하셨다.
- B. 제사장으로서 사무엘은 아론의 계통에 따른 진부한 제사장 직분을 대치하였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을 종결하였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용하시어, 반역이나 혁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신성한 계시의 방식으로 시대를 전환하여 왕권을 이끌어 오게 하셨다.
- C. 사무엘은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으며, 모든 일을 자신이 본 것에 따라 수행하였다. “여호와는 ...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분 자신을 사무엘에게 계시하셨다.”(삼상 3:21) 더욱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의 복사본이며 복제였다. 그러한 사람으로서 사무엘은 결코 반역적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V. 사무엘은 행동과 생활과 일뿐만 아니라 그의 온 존재와 인격도 하나님과 일치했다. 사무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일치하는 사람이었던 사무엘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대행자였다고 말할 수 있다.

- A.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곧 사무엘이 고려하는 것이었다. 사무엘에게는 다른 사상이나 고려나 생각이 없었다. 사무엘의 생활과 일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 B. 사무엘은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였다(삼상 10:1, 16:1, 13).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에 따른 것이었으며, 이에 따라 사무엘은 줄곧 그분의 기름부음 받은 이 앞에서 행하면서(2:35) 왕을 감독하고 왕이 행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결정 연구 개요

메시지 3 (계속)

- C. 이것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대항자였던 사무엘이 왕보다 더욱 위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분의 경륜을 위하여 오랫동안 사무엘을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러한 정도까지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
1.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시기 위하여 사무엘을 쓰실 수 있으셨던 것은 사무엘이 하나님과 일치된 사람이자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사람으로서, 자신을 전혀 관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구하려는 어떤 생각도 품지 않았기 때문이다 — 비교 마 16:24-26, 눅 9:23-25.
 2.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선민 이외에는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반사했다 — 비교 빌 2:19-22, 고후 3:16-18.
 3. 사무엘은 하나님의 개인적인 보물과 소유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을 여호와께 죄를 짓는 것으로 여겼다 — 삼상 12:23, 출 19:5.
- D. 비록 사무엘이 그의 특별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표하기가 쉽지 않았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권익을 주의했고 시대를 전환했다. 구약에 따르면, 사무엘은 하나님과 그분의 권익을 위하는 면에서 모세와 동등한 위치에 놓인다 — 램 15:1.
- E. “사무엘이 백성에게 왕국의 법도에 관하여 이야기한 다음, 그것을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었다.” — 삼상 10:25상.
1. 비록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을 주었지만 사무엘 이전에는 그들에게 상세한 규칙, 곧 헌법이 없었다.
 2. 사무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상세한 규칙, 헌법, 법도, 관례, 관습, 규례, 법칙을 백성에게 가르쳤다.

VI. 하나님은 어린 나실인이었던 사무엘을 신실한 제사장으로 일으키시어 타락한 제사장 직분을 대치하게 하심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셨다 — 삼상 2:35.

- A. 하나님은 낡은 제사장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대치하시기 위하여 사무엘을 세우셔서 그분의 말씀을 말해 내도록 하셨다. 제사장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면서 해야 하는 일 중 첫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는 것이다.
- B. 대제사장이 착용한 가슴받이와 우림과 둠뭇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신 도구였다(출 28:30). 제사장 직분이 타락하자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사라졌다(삼상 3:1, 3상).
- C. 하나님은 사무엘을 높이 올려진 신언자 직분을 담당할 신언자로 세우심으로써 그분의 선민에게 말씀을 공급하셨고(삼상 3:20-21), 사무엘을 사사로 세우심으로써 그분의 선민에게 권위를 행사하셨다(7:15-17).

사무엘기상·하

메시지 3 (계속)

- D.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은 사사 직분을 종결하였고, 새로운 제사장으로서 왕의 직분을 이 끌어 왔다. 이 왕의 직분은 높이 올려진 신언자 직분에 의해 강화되었다.
- E. 하나님은 그분을 위해 말할 살아 있는 사람인 신언자를 일으키셔야 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에 따르면, 사무엘은 첫 번째 신언자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는 신언자 직분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 행 3:24, 13:20, 히 11:32.

VII. 사무엘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하나였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대행자, 곧 이 땅에 있는 그분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자신의 대표였던 사무엘은 다섯 가지 신분으로 사역하였다 — 삼상 7:3.

- A.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을 성취하시도록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헌신한 나실인으로서 사역하였다 — 삼상 1:11, 28상.
- B.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사역하면서, 진부하고 타락한 제사장 직분을 대치하였고, 하나님을 위하여 신실하게 행동하며 심지어 이 땅에 있는 신성한 통치를 위하여 왕들을 임명하고 세우기까지 하였다 — 삼상 2:30, 35-36, 7:3-17, 삿 9:9, 13.
- C. 사무엘은 하나님께 세움을 입은 신언자(삼상 3:20)로서 사역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도 흔하지 않았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써 낡은 제사장 직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것을 대치하였다(1-10, 19-21절).
- D. 사무엘은 왕권의 실재를 지닌 사사로서 사역하면서, 백성을 판결하던 낡고 진부한 제사장 직분을 대치하였다 — 삼상 7:15-17.
- E.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으로서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선민을 위해 기도하되 그들이 하나님의 길 안에 보존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며, 이방 민족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울무에 걸리지 않고, 에벤에셀(‘도움의 돌’이라는 뜻이다—삼상 7:12)이신 하나님을 누러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민에 대해 뜻하시는 갈망이 성취되기를 기도하였다(삼상 7:3-17, 8:6, 12:19-25, 15:11하).